

반듯한 저작권 문화 우리 힘으로 이룬다

문체부, 오늘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개최 ... 440명 위촉 본격 활동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7일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2016년 저작권 지킴이 합동 발대식'을 개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와 함께 하는 이번 발대식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 저작물의 유통을 근절하여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 또한 저작권 지킴이를 위촉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와 상정하는 저작권 브랜드를 처음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박민권 차관은 이번 발대식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문화융성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형성과 저작권 보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저작물 이용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저작권 지킴이는 온라인에서 불법복제

물의 유통을 감시하는 채택근무 지킴이와 실제 불법복제물 유통 현장을 돌아보며 감시하는 '허신 지킴이',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을 수행하는 '저작권 청년강사'로 나뉘어 활동한다. 올해 저작권 지킴이는 총 440명이 위촉되었으며, 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장애인(200명)과 경력단절여성(95명), 다문화가족 및 차상위계층(25명) 등으로 구성된 채택근무 지킴이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특화되어 활동한다. 이들은 ▲웹포스트 등 저작물 유통 웹사이트와 ▲카페,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 해외 주요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한다. 작년 한 해 동안 7700만 점이 넘는 불법복제물이 적발되어 약 335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60세 이상 어르신 지킴이(20명)는 수도권 지역 내 전철역과 전통시장 등 불법복제물 유통 거점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

을 한다.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제보하는 역할도 한다.

저작권 청년강사(100여 명)들은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현장을 찾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저작권 교육을 한다. 지난해에는 4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교육을 받았으며, 저작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의식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관련 정보가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 브랜드 '반듯'을 개발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저작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활용한 눈높이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선포식 이후 '반듯한 저작물 사용,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공모공고를 수상 방송과 케이블 텔레비전 등 대중



저작권 브랜드 '반듯'

매체 방송과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 브랜드 '반듯'은 콘텐츠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함께 누리는 반듯한 저작권 문화를 조성함을 의미하며, 브랜드의 이름은 '반듯한'과 '저작권 표시' (저작권 Copyright 氏 의인화)가 합쳐진 단어로 '반드시'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상징체계(표)는 정성을 다해 만든 '창작자'와 '올바른 이용'으로 저작권을 지키는 '이용자'가 서로를 최고라고 칭찬을 더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인진수 기자



조성진 쇼팽콩쿠르 '열정' 버전 나와

피아니스트 조성진(22)이 지난해 10월 한국인 첫 우승의 역사를 쓴 제17회 국제 쇼팽피아노콩쿠르 실황앨범의 또 다른 버전 음원이 미리 공개됐다.

프리데리크쇼팽협회 레이블로 발매되는 이번 음반의 국내 배급사인 (주)씨엔엘 뮤직은 16일 음원사이트에 음원을 올렸다.

앞서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인 도이체그라모폰(DG)을 통해 발매돼 국내에서 10만장 판매를 목전에 둔 실황음반이 프렐루드를 중심으로 소나타와 폴로네이즈 등을 담은 반면, 이번 음반은 1~3 라운드의 핵심 연주를 골라 실었다. DG음반이 서정적이라면 이 음반은 좀 더 열정적이다.

러닝타임 총 77분으로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콩쿠르 매 단계에서 조성진이 연주한 대표곡들이 골고루 포함됐다. 지휘는 야체크 카스피르크, 협연은 바르샤바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맡았다.

작년 10월3일 1라운드 첫 곡인 쇼팽 에튀드 작품 10의 1번으로 시작, 환상곡(10월9일 2라운드), 네 곡의 마주르카(10월14일 3라운드) 등 조성진의 화려한 연주들을 담았다.

가장 중요한 연주는 쇼팽 협주곡 1번이다. 조성진이 결승에서 연주한 곡이다. 이번 음반에는 10월21일 수상자 갈라 콘서트 실황연주가 담겼다. 음반은 23일 오프라인에 발매된다.

/인진수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국제도서전에서 총 400여종의 한국 도시를 전시할 예정이다

한국 도시 우수성 세계에 널리 알린다

대한출판문화협회, 21일까지 타이베이 국제도서전 참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18일부터 21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세계무어센터에서 열리는 '제24회 타이베이 국제도서전'에 참가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우리나라 출판사들의 단체 전시관인 한국관을 설치, 운영한다. 한국관에는 여원미디어, 북이십일, 에리케이전사, 피케이이전사 등 4개사가 참가해 부스를 차린다.

출판은 한국관 참가사의 도서와 13개사(키움 (주)풀과 바람, 우림북, 도서출판 마루북 (주)시공사, 알리바바북스 (주)현암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산지니, 청림출판 (주)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봄봄출판사,

파란(자전거)의 위타도서를 포함해 총 400여종의 한국 도서 전시를 통해 국내 도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올해 타이베이국제도서전의 주빈국은 헝가리다.

'자유와 사랑(Freedom Love)'을 메인 콘셉트로 내건 헝가리는 자국의 책과 작가 소개, 전통무용 공연, 등 헝가리 문화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영수 출판 회장은 "종국어권 시장에 진입한 기존의 국내 출판사들이 저작권 계약 상시라는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아파하는 청소년 '레퀴엠'으로 위로

군산시립합창단 내일 정기연주회에서 연주

군산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박지훈)은 오는 18일 저녁 7시30분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제8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모차르트 '레퀴엠'을 바탕으로 한 이번 연주회는 어른들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고정된 시대의 오류를 지적하고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보수적 교육관과 올바르지 못한 인성교육, 과도한 입시교육에 내몰려 지치고 아파하는 청소년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

1부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 유명한 아리아 독창과 2중창을 연주하며, 2부는 모차르트 레퀴엠과 퍼포먼스를 함께 구성하여 듣는 오라토리오가 아닌 보고 듣는 오라토리오가 연주될 예정이다.

공연장 입장연령은 중학생 이상이며 티켓은 전석 무료이다.

박지훈 상임지휘자는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늘 노력하며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이해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연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연을 통해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는 합창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모차르트 레퀴엠 퍼블릿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문화재청, 웹툰 '물상객주' 공개

우리 문화유산을 다룬 최초의 장편 웹툰 '물상객주'가 17일부터 5월18일까지 14주간 매주 수요일 온라인과 모바일에 공개된다.

문화재청이 지난 5년여간 발굴한 '문화유산 이야기 자원'을 활용해 문화유산에 얽힌 다양한 일화와 의미를 웹툰 속 이야기로 녹여냈다. 제북민물상객주(物商客主)란 장사치를 집에 머물러 목제하거나 그들의 물품을 소개하는 일 또는 흥정을 붙이는 일을 주로 하는 영업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은 거상인 물상객주 김학수와 몰락가문 출신의 재기발랄한 여인 '서기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선 15대 정시 중 하나인 송과장에서 좋은 물건을 구하려는 김학수와 그에게 물건을 팔고자 하는 서기연의 기지가 부딪치며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청소년들의 시각에 맞춰 제작된 물상객주는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kids.dca.go.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EBS의 김조로 ▲한국교양방송공사 초·중등 학습 누리집(www.dca.co.kr)과 모바일 앱(m.ebs.co.kr)에 동시 연재된다.

/인진수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ilab.com/

(2016년 2월 17일)

<p>▷쥐띠 46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다. 80년생: 손이려 사람으로 인해 근심할 일이 생기니 미리 신경써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72년생: 큰 움직임은 오히려 불리하다. 84년생: 뜻밖의 재정이 따르는 운이다.</p>	<p>▷소띠 46년생: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는 운. 61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하지 않으면 구설수에 오르니 조심하라. 79년생: 실물수가 따르는 운이다. 85년생: 충실을 잡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p>	<p>▷호랑이띠 50년생: 민첩 반용의 운이다. 62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무난한 하루가 될 수 있는 운이다. 74년생: 무심코 한 말로 인해 큰 파장이 뒤따른다. 86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p>	<p>▷토끼띠 61년생: 격정거리니 근심거리가 해결될 수 있는 운. 63년생: 천운이 따르는 좋은 운으로 어려움이 겹칠 일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운이다. 75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주의하라. 87년생: 김학수처럼 좋아하는 법이다.</p>
<p>▷용띠 52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동성과 함께 일을 진행하면 쉽게 해결. 64년생: 공과 시를 구별하지 않으면 구설이 따르는 운. 76년생: 개으룡이 발목을 잡으니 미칠 때일수록 운주하게 움직여라. 88년생: 지금은 내실을 다지며 노력해야 하는 운이다.</p>	<p>▷뱀띠 53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65년생: 감정의 기복을 조절하고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77년생: 주변에 도움을 요청받았지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없으니 목적해 노력하라.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자주 착입이 생기는 운</p>	<p>▷말띠 54년생: 정신이 산만한지 집중하기 어려운 운이다. 66년생: 시비수가 따르니 자신과 최대한의 사람과 말을 섞지 마라. 돌이킬 수 없게 된다. 78년생: 손재수가 생기는 운이다. 90년생: 뒷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운</p>	<p>▷양띠 55년생: 마음이 산만한 운. 67년생: 사랑의 모임을 갖거나 식복은 있으나 많은 말은 심가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79년생: 긍정적으로 지출이 심해지는 운. 91년생: 뒷사람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p>
<p>▷원숭이띠 59년생: 부득이하게 숙티할 일이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68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금전관리에 주의. 80년생: 주변사람에게 신경 써야 하는 운이다. 92년생: 진퇴양난의 운이다. 이럴 때에는 지중하며 빠른 기피라</p>	<p>▷닭띠 57년생: 열의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69년생: 양보와 타협만이 화합의 길임을 잊지 말라. 81년생: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지 않으니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운이다. 93년생: 출렁거리니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 위험은 삼가라</p>	<p>▷개띠 46년생: 타인과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생각 없이 한 언행으로 다툼이 생기니 주의하라. 58년생: 먼저 작은 것을 손해 보면 후에 큰 이익이 있는 운이다. 70년생: 모든 일은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으니 때를 잘 맞춰 움직여라. 8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야 할 때.</p>	<p>▷돼지띠 47년생: 손이려 사람으로 인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니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59년생: 동기간 불화가 생기는 운. 71년생: 인덕을 볼 수 없는 운으로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운이다. 83년생: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따르는 운</p>